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7월18일(연중 제16주일)	7월25일(연중 제17주일)		
새벽 미사	해 설	안정준 바오로	권미라 리오바		
	1독서	황숙자 베로니카	변은숙 M.막달레나		
	2독서	김인숙 세실리아	도정숙 메히틸다		
교중 미사	해 설	김재실 에바리스또	조성물 스테파노		
	1독서	박풍자 엘리사벳	김승원 마오로		
	2독서	김말순 베아다	황숙자 베로니카		
화 답 송	주 님 - 은 나 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7월19일(월)	7월20일(화)	7월21일(수)	7월22일(목)	7월23일(금)
해설	이상희 로사	안정준 바오로	권미라 리오바	조성물 스테파노	손 요안나
독서	방경자 레지나	평화의 모후	구세주의 모후	신비로운 장미	천상의 모후

7월18일 (연중 제16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전명길(베드로), 곽정현(프란치스코)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청소년분과
	미사안내	사회복지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성실하신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김정숙(스텔라)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박안홍(시몬) 후: 신강순(도미니코)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7월25일 (연중 제17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신희락(요아킴), 박재현(요한보스코)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가정사목분과
	미사안내	시설관리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성실하신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오일규(루카)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주양원(요셉) 후: 박계현(프란치스코)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사랑터

제1743호

연중 제 16주일 (농민주일)

2021년 7월18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010-4796-3039(선종단장)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010-2564-6202(선종부단장)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6시어린이, 18:30특전 / (주일) 6:30, 10:30

- 이번 주 농민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농민주일 2차헌금은 가톨릭 농민회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펼치고 있는 '생명 공동체 운동'의 밑거름이 됩니다.
- 성경 완필자 명단 제출
-신.구약 성경 완필하시고, 주교님 완필 축복장을 맡길 원하시는 분은 7/2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꾸리아 평의회
-이번 주 11:30, 강당
-참석대상: Cu.간부와 Pr.단장
-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방학
-일시: 7/31-9/4일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 미사 없음

- 농민주일(우리농 매장 10%할인)
-일시: 7/17-18일
- 전입을 환영합니다.
-김순임 이르미나(6구역 월 림 반)
-조한숙 비비안나(1구역 중홍예교)

- 교중미사 참례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구역별로 분산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제17주일 (7/24~25일)	특전(18:30)	1구역, 기타	연중 제18주일 (7/31~8/1일)	특전(18:30)	3구역
	새벽(06:30)	2구역, 5구역		새벽(06:30)	1구역, 기타
	교중(10:30)	4구역, 6구역 3구역		교중(10:30)	2구역, 5구역 4구역, 6구역

-사정이 있는 분들은 원하시는 미사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교구청 신축모금을 위한 봉헌서 제출 -일시: 목표달성까지 신축기금 봉헌서를 작성해서 제출 -납부: 교무금 12개월분 이상 약정하여 22년말까지 봉헌 -개인이나 단체의 특별 기부금도 환영합니다.		교구청신축기금 본당계좌 농협843-01-070968 (재)마산교구천주교회 진영성당
교구청신축모금 : 7월10일(토)-7월16일(금) 백만진 알로이시오(5), 김경순 율리아나(2), 조명분 막달레나(2), 정영권 미카엘(4-5), 이영순 아솅다(4) 이중웅(완), 전정환 요한(완), 이상을 바오로(1-6), 김준상 안토니오(4-6), 박정희 안나, 정기숙 루카 이번 주 봉헌액: 2,540,000원 (누계:49,044,936원)		*본당 1년 교무금 총액 204,000,000원(343세대) *현재 봉헌서 제출 총액 96,862,000원(136세대)

교 무 금 : 7월10일(토)-7월16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김주홍(벨라도)	6-8	정용경(골롬바)	7	최이균(베네딕도)	7
조영주(로사)	7	백만진(알로이시오)	7	서혜란(M.막달레나)	7
김경순(올리아나)	8	김정수(마리아)	5-8	이순덕(안나)	6-7
김영애(다리아)	7	이광금(노엘라)	7	강지민(마틸다)	6
김판곤(오네시모)	7	이영순(아숨다)	6-7	구지현(유스티나)	7
박정희(안나)	7-8	김종진(안토니오)	7-8	김정미(루치아)	7
이종웅	11-4	이원구(F.하비에르)	7	전정환(요한)	7-12
이원호(마태오)	7	김승원(마오로)	7	노말숙(루시아)	7
권미라(리오바)	6	차화선(스텔라)	5-6	이상율(바오로)	7-8
박순희(테레사)	5-9	송계용(바오로)	8	김태희(마르코)	7
윤주국(알로이시오)	7	허정숙(아네스)	6	최용훈(안드레아)	7
김병찬(바오로)	7	박안홍(시몬)	7	이창근(미카엘)	7
허정진(요셉)	7	하창용(바오로)	7	송혜영(골롬바)	7
구슬이(에메렌시아나)	7	신지연(마리스텔라)	7	박상옥(안토니오)	7
교구사업모금(2021년 배정액 2,790만원중 745만원 봉헌)					
정용경(골롬바)	7	최이균(베네딕도)	7	서혜란(M.막달레나)	7
김판곤(오네시모)	7	김승원(마오로)	7	송계용(바오로)	8
윤주국(알로이시오)	7	김병찬(바오로)	7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례자		333명
			교무금		3,811,000원
			주일헌금		1,819,000원
			교구사업모금		172,000원
			성소후원금		147,000원

[영혼의 양식]

미사 수건

성당에서 미사 등 공식 의식을 집행할 때 여자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쓴다. 이것을 미사 수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역사는 그 옛날 구약의 풍속으로까지 소급될 수 있다. 창세기 24장 65절을 보면 이사악의 부인 리브라가 자기 장부 앞에서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다. 구약을 살펴보면 비단 부인들뿐만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는 남자들도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다. 예컨대 모세가 야훼를 만난 다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쓰여 있다.(탈출34,33)

그러나 실상 미사 수건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고린토 교회에 보낸 사도 바오로의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자기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을 밟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된다면 머리를 깎아 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니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시오.....”(1고린 11,5-7) 이상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여성의 머리 개념’을 알 수 있다. 즉 여인의 머리는 남편의 영광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비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세속적이고 사치성의 개념으로도 생각되기에 성소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전통적인 사상인 듯하다.

디오게네스의 자유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버림으로써 만족을 얻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있어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구속이었고 자신을 묶어두는 사슬이었다. 하루는 동냥 그릇을 들고 물을 마실 강가에 다다랐는데 개 한 마리가 그를 앞서 강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며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디오게네스는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서 개처럼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래, 이 개는 아예 동냥 그릇조차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걸 보니 나보다 더 자유로워. 그동안 나는 나의 유일한 재산인 그릇 때문에 밤중에도 누가 가져갈까 봐 불안해서 잠이 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는가? 그릇이 안보이면 주위의 사람을 의심도 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손에 들었던 동냥 그릇을 아무 미련없이 강물에 던져 버리고는 자유롭게 헤엄도 치고 물을 마시며 한참을 놀았다. 디오게네스와 개는 어느덧 절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